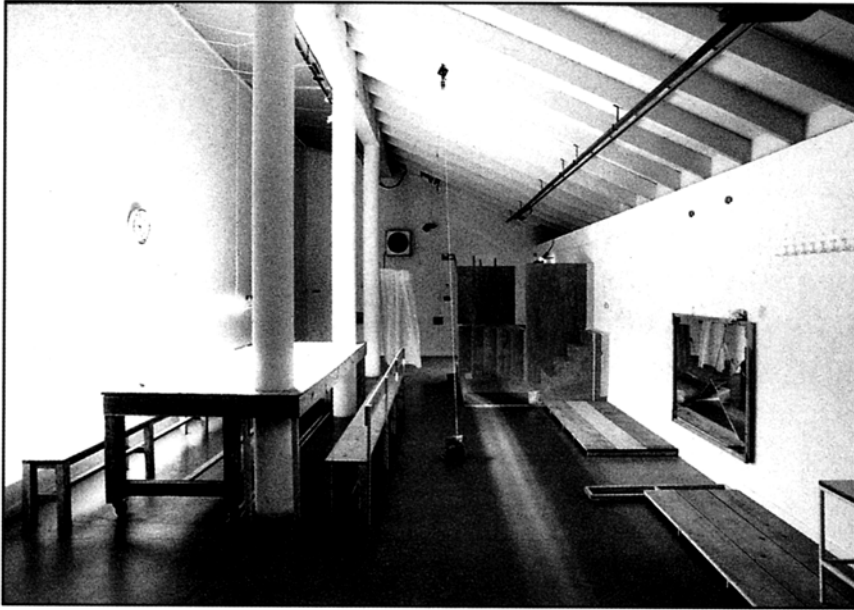


Article paru dans :
the Monthly Music and performing arts magazine 'Auditorium'
1997



파리 현지 취재 / 춤과 조형예술의 만남 '블록'

공간개념을 파괴한다

한 편의 공연을 위해 몇 달 동안에 걸쳐 극장의 내부가 개조됐다. 2층 건물 내에 6개의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고 관객들의 수는 19명으로 제한됐다. 더이상 극장은 '보는 장소'가 아니었다. 화제를 모은 실험공연의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장인주/ '객석' 파리 통신원

지난 10월 3일부터 시작해 18일까지 파리 근교 도시 누아지엘에 위치한 라 페르므 뒤 뷔송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현대무용가 루아크 투제, 조형예술가 프란시스코 루즈 드 앙팡트의 공동작 '블록'은 춤과 조형예술의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프랑스 무용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단지 이 한 작품을 위해 지난 여름부터 내부 개조작업이 시작되어 2층 건물 내에 6개의 작은 공간을 제작했다고 해서 공연 전부터가 화제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관객 전체가 직접 공연에 참여한다는 점 또한 일반 관객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시켰다. 19명으로 관객 수를 제한하고 '보는 장소'로서의 아닌 '행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설정은 대담한 시도였으며 단계적으로 관객을 공간 내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97년 가을 현대무용공연 중 성공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섯 공간으로 나누어진 제3세계로의 미로여행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번째 공간이 나타난다. 놀이동산에서 우주여행을 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대기실을 연상시키는 공간은 마치 학교 교실을 그대로 모방한 듯하다. 안무자 루아크와 공간설계자 프란시스코, 그리고 5명의 무용수가 낮은 공간에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관객들을 인도한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벗고 가방과 함께 오른쪽 벽에 있는 옷

걸이에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는 왼쪽에 위치한 긴 책상을 중심으로 벤치에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는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이윽고 루아크와 프란시스코는 이 공연이 어느 무용공연과는 다르다는 것과 그동안의 작업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관객 한 사람이 무용수에 의해 방 뒤쪽에 있는 커튼 뒤로 인도된다. 그리고는 환풍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얀 공간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무용수들의 동선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드디어 무엇인가가 시작된 것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객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첫번째 공간(왼쪽)과 정지된 동작이 공간의 산만함을 마무리하는 여섯번째 공간(위)

관찰한다. 책상이 뒤로 빼내지더니 서랍 안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난다. 커튼 뒤에서는 계속해서 관객들을 한 명씩 바꾸어가며 나무막대를 벽과 몸 사이의 여러 부분에 기대어놓고 서서히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생기는 굴곡을 만들고 있었다. 갑작스런 충격에 나무막대는 모두 바닥에 쓰러지고 그동안 닫혀 있던 새로운 문이 열리며 한 명씩 두번째 공간으로 인도된다.

관객들은 어둠 속에서 미로를 헤매다 철계단을 올라가 두번째 방으로 안내되었다. 여전히 어두운 공간 가운데 바닥에는 판자가 길게 놓여 있고, 공중에는 조명기구가 달려 있다. 그 주변에는 의자들이 열 개 가량 놓여 있는데, 관객들은

자유로이 자리를 차지한다. 음악이 들려오는 듯도 하고 다른 관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문에서 발생하는 돌과 금속이 부딪쳐 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린다. 한 여자 무용수가 나무 판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루아크가 조명기구를 이용해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를 번갈아가며 밝기를 조절한다. 키 큰 남자무용수 한 사람이 초콜릿을 나누어주고는 자신도 먹는다. 다른 무용수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콧속말로 전한다. 그리고는 번갈아가며 솔로로 즉흥동작을 연이어 보여준다.

세번째 공간은 다락방이다. 간이침대가 사방에 놓여 있는데, 자연의 소음을 들으며 드러누

운 채 천장과 벽에 비쳐지는 새가 날으는 화면을 본다.

드디어 그동안 각자 다른 리듬으로 이동하던 19명의 관객이 작은 공간에 모두 모였다. 네번째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승강기를 연상케 한다. 한쪽 벽면이 갑자기 열리고 짐승 코를 모방한 장난감을 코에 달고 긴 나무막대를 든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나무막대의 다른 한 끝으로 한 명씩 관객을 유인한다.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나무막대를 양쪽에 잡고는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공간을 돈다. 느린 동작이기는 하나 서로에게 집중하고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며 심각하게 움직인다.

다섯번째 공간은 마치 공사장을 보는 듯하다.

공간 가운데 공사가 덜 끝난 방이 있고, 사방에 건축재료들이 너저분하게 놓여 있다. 이제 무용수의 손에 이끌려 공간을 이동하던 관객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창문으로 들여다보기도 한다. 그러나 무용수들이 빠른 속도로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깊게 주변을 관찰해야 하고, 그들과 타이밍을 맞추어야만 원하는 장소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비로소 누가 관객이고 무용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다.

여섯번째 공간은 정사각형 형태의 마당놀이 공간을 연상케 한다. 한쪽에서는 실제 드림을 연주하고 관객들은 강하게 들리는 드림소리에 맞춰 사방에 흩어져 자리한다. 비어 있는 가운데 공간에서는 절정 뒤의 결말을 맺듯이 무용수들이 듀엣으로 번갈아가며 정지된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전 공간에서의 산만함을 마무리한다. 갑자기 한쪽 벽면에 위치한 쇠문이 열리고 무용수 모두가 뛰어나간다. 또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인가 싶어 관객들은 쫓아나가지만 각자의 걸음과 가방이 바깥 한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제3세계로의 여행'을 다녀온 듯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느라 분주하다.

카롤린 칼송에게서 걷는 것을 배웠다

루아크는 어린시절 유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루아크의 부모는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누나와 함께 무용을 배우게 했다. 타고난 남다른 재능이 있어 아홉 살에 파리 국립 발레 학교에 입학하고 8년간 발레를 공부했다. 엄한 교육과 힘든 훈련 속에서 발레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실비 길렘의 파트너 역할을 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드디어 18세에 발레단에 입단했으나 심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83년 열아홉 살 때로 기억합니다. 프랑수아 베레의 공연 중 전자 기타음악이 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가슴 속에서 타이즈를 신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말고 다른 무엇

“상업적인 예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 97년 가을 공연에는 '블록' 외에도 유난히 신세대 안무가들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는데, 무용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장 콜로트 갈로타나 필립 데쿠플레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안무가들의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아카데미즘 파괴작업은 사실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의 작업도 배울 점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현재 빠져 있는 함정은 반(反)아카데미즘의 결과로 발생되는 또 다른 형태의 아카데미즘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쳐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안무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르 몽드' 지에서는 '관객을 춤추게 했다'는 평을 했더군요. 관객의 움직임에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인간관정을 억제하고 진정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익숙해 있는 관객들은 점차적으로 프란시스코와 제가 만들어놓은 공간으로 들어와 순조로운 리듬으로 사교의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난폭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 의도는 부드럽고 안정된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객들은 오히려 기대 이상의 만족스런 참여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만용이나 폭력과 정반대되는 조정 가능한 자유로부터 우러나오는 움직임이 있는 공간설립이 목적입니다."

- 발레를 배운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음을 받았습니. 발레단을 그만둔 이후 여러 유명안무가와 함께 작업한 데는 그려



안무가 루아크 투제와 조형 예술가 프란시스코 퀴즈 드 앙팡트

도 발레 테크닉을 익힌 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사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발레의 아카데미한 테크닉을 잊어야 합니다. 도약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움직임에 익숙한 것이지요.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동작도 꼭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객들의 미숙하고 주저하는 동작이 무용수의 동작과 만났을 때 '블록'이 갖는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 관객과 좀더 친근하게 호흡하기 위해서라면 '극장'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장은 공간의 모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극장 내에 관객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얻은 후에 꼭 극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상업적인 창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공연이란 없지요. '블록'과 같은 맥락으로 두 편의 작품을 계획중입니다. 같은 정신과 미학을 담고 있으나 다른 형태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가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후 발레단을 단호히 그만두고 카롤 아미타주·카롤린 칼송·머스 커닝햄 등에서 현대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맨발로 걷는 것이 허찮은 동작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움직임의 기본이지요. 카롤린 칼송에게서 드디어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그는 곧 여러 현대 무용안무가들(칼송·마텔 드 모니에·카트린느 디베레·베르나르도 몬테)로부터 초대되어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89년 반고호 형제를 소재로 한 첫 작품 '해바라기 방'을 발표해 안무가로 데뷔했다. 그후 92년 자신의 무용단을 창단한 후 8명의 신작을 발표했다.

"신체, 욕망, 사고 그리고 리듬을 갖고 나의 고유한 언어를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배우·음악가·조형예술가 등과 어울리며 복합예술로서의 무용을 연구했다. 페르름 뒤 뷔송 극장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작년에

드디어 춤과 음악의 조화를 주제로 한 '만일 우리가 평온하게 걷는다면...'을 발표했다. 이번 신작 '블록'은 그 두번째 단계로서 춤과 조형예술의 만남을 실행한 것이다. '블록'은 육면체의 건축재료이다. 공간·시간·음악·정신과 움직임, 그리고 관객 등의 요소가 모두 모여 한 면적을 차지할 때 비로소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는 의미다. 즉 루아크에게 있어 관객은 유난히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관객의 움직임을 무용가의 의도적인 움직임과 똑같은 비중으로 자신의 예술세계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올해 34세인 루아크 투제는 이제 안무가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철학을 갖기를 원한다. 그는 성공작으로 평가받은 이 작품으로 인해 특정한 스타일의 안무가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오직 '절제된 자유'라는 현대무용의 기본 철학을 깊게 담고 있는 살아 있는 작품창작을 추구할 따름이다. ■



각 무용수의 솔로가 행해지는 두번째 공간(위)과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다섯번째 공간(아래)

